

중동 전쟁·3고 기조... 유통업계, '소비 살리기' 총력

〈고유가·고환율·고물가〉

가격 인하·할인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잡기 '안간힘' 생필품·먹거리 등 가성비 상품 중심...제철 음식도

중동 전쟁 장기화와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격 인하와 대규모 할인 행사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먹거리와 생필품 전반에 걸쳐 할인 폭을 키우며 소비자 체감 물가 낮추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 112.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p)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유통업계는 대대적인 할인 전과 혜택을 쏟아내며 소비 불세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9일부터 29일까지 대표 PB(자체브랜드) '오늘좋은'과 '요리하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 'PB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고객 구매 빈도가 높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초가성비 상품을 확대해 실질적인 체감 할인 혜택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고물가 기조 속 증가하는 집값 수요를 반영해 스타 셰프와 협업한 가정 간편식(HMR) 신상품을 선보이는 등 PB 상품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PB 페스타 기간에 맞춰 '요리하다' 스타 셰프 에디션 신상품 20종을 출시해 선보인다.

이번 신상품은 올해 요리 예능으로 인지도 높은 안우성, 정호영 셰프의 레시피를 담은 한식·일식 가정간편식으로 구



중동 전쟁 장기화와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격 인하와 대규모 할인 행사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성됐다. 홈플러스도 높아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특히 원연한 봄철을 맞아 나들이 준비

와 먹거리 수요가 증가함에 맞춰 높아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봄 제철 먹거리 할인 행사를 열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두름, 명이나

물, 흥가리비 등 제철 식재료와 요리용 채소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잠두름과 남해 땅두름, 강원 명이나물이 있으며,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실키핑크 토마토 역시 할인 적용 상품에 포함됐다.봄철 한정 식재료인 햇줄기 양파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줄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봄철에만 출하되는 제철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수산물의 경우 멧개, 바지락, 흥가리비 등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상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와 함께 키위 등 과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으며 대과, 애호박, 마늘 등 주요 채소도 특가로 판매된다.

이밖에도 무, 당근, 양배추 등을 하루 한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구매 빈도가 높은 생필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성비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가격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바구니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 aT,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AI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 지표가 신설되고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aT는 이번 평가에서 97.04점을 획득했는데 이는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67.6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92.5점)보다 높은 점수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를 인정 받았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소진공 광주전남제주본부, 전국상인회서 노고 인정

조영문 과장, 지역 상권 활성화 공로 등에 표창장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상인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이어온 소진공 센터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달 진행된 '민생 현안 소통을 위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직원 격려와 사기 진작의 하나로 이뤄졌다.

상인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에서는 조영문 과장이 수상했다.

조 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시장별 상권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장경영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 점검 체계 구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지역연계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광주 시 소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특색이 가미된 쇼핑, 문화 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했다.



조영문 과장

이밖에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및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지킴이인 만큼 불빛이 다"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땀 흘려 온 직원들의 노력이 상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소진공은 앞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및 소상공인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강력한 우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 공모 환경 분야 신설...내달 31일까지 접수

포스코청암재단이 국내 신진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 제18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환경 분야가 새롭게 신설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성 연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했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은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신진교원을 선발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8기 모집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의 기초과학 4개 분야와 금속, 신소재, 에너지 소재, 환경의 응용과학 분야를 포함 총 7개 분야다.

새롭게 신설된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대기, 폐기물, 수질, 토양 등 환경 매체 전반은 물론 지구 환경 변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문제 해결 연구를 폭 넓게 포함 했다.

지원 대상은 임용 36개월 이내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의 전임 교원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2년 간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접수는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면심사, 추천서 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금까지 청암재단은 총 543명의 사이언스펠로우를 배출, 국내 대표 연구자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암재단 관계자는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폭넓은 연구분야를 지원하며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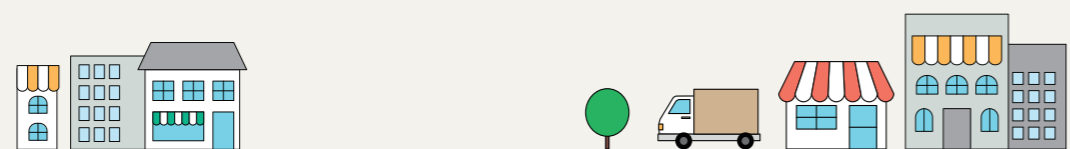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남대 후문 공동 마케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품 돌림판을 돌리고 있는 모습



전남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주최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북구

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